

主題

신규 서비스 제공계획

하나로통신 사장 신 윤식

차례

- I. 회사 현황
- II. 사업 추진 방향
- III. 사업 준비 현황 및 계획

I. 회사 현황

가. 설립 목적

하나로통신은 제 2 시내전화사업자로서 시내 가입자망의 초고속화, 고도화를 통해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선도한다는 사명을 띠고 있다.

아울러 통신망 경로의 다원화와 자동복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홍수나 화재 등 국가 재난이나 재해와 같은 비상시를 대비한 제2의 국가 기간통신망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나. 조직 및 인원

하나로통신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최대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웃소싱을 최대한 활용해 현재 6백60여명의 임직원으로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말 상용서비스가 개시되더라도 7백명 수준으로 인력 규모를 맞출 계획이다. 이에 따

라 전체 조직은 현재 영업단과 네트워크 사업단 등 2단과 관리담당, 기획, 마케팅담당, 네트워크계획 담당 등 3담당제 아래 14실, 62팀, 2지사, 2센터 체제로 구성돼 있다.

다. 자본금 및 주주 구성

97년 설립 당시 6.004억원의 자본금에서 두차례 증자를 통해 약 3천2백억원의 자본금을 확충함으로써 현재 납입자본금은 9.2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7백여 법인과 6만여명의 개인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II. 사업 추진 방향

가. 사업 추진 전략

하나로통신은 사업 초기 서비스의 안정화를 위해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업무용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광케이블망(FTTO/FTTC)을 구축해 초고속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상용시스템을 개발하고 인정화 작업을 진행중인 무선가입자망(WLL)은 충분한 품질 검증후 올 9월경 상용화에 나설 방침이다.

하나로통신의 서비스 상품은 초고속 통신 욕구를 반영한 “고품격·적정가격” 상품을 개발,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초고속 인터넷과 지능형 전화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써 데이터 전송속도는 인터넷 접속의 경우 최고 전송속도는 광가입자망은 8Mbps, CATV망은 10Mbps, WLL은 128K까지 가능하다. 또한 음성전화는 평생동일번호, 멀티벨, 통합메시징 등의 첨단 지능망 서비스가 제공된다.

핵심 가정 고객층을 대상으로는 고품격 통합상품을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영상전화와 고속인터넷, 시내/시외/국제/이동전화 등을 패키지화하는 방안과 통합 빌링, 통합 A/S, 정액형 요금제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업고객 대상으로는 풍부한 초고속 회선 공급 및 통신분야에 있어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통신과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준수하면서 유선계 통신서비스의 상호 성장이라는 Win-Win 전략을 추구할 방침이다.

단순 음성전화 시장에서의 이전투구식 요금경쟁을 지양하는 대신, 신규 멀티미디어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시장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동시에 통신설비의 상호활용을 통한 국가 통신자산의 활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통신설비와 국사의 상면적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를 최소

화할 계획이다.

나. 사업 추진 목표

하나로통신은 품질차별화를 통해 초고속 멀티미디어 시내전화회사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전략이다.

이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99년 4월 서울, 부산, 인천, 울산 등 전국 4대 주요도시에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되, 사업초기에는 광가입자망(FTTO/C) 위주의 광대역 초고속 통신서비스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성남 등 5개 도시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남은 FTTO/C를 활용하는 이용한 광대역 초고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구, 광주, 대전, 안양 지역에는 CATV망을 이용한 초고속 데이터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후 2003년까지 수도권 인접도시와 도청소재지 등 14개 도시로 서비스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08년경 전국 144개 통화권 전체를 대상으로 초고속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하나로통신 사업목표

구 분	1999	2000	2001
회선수 (천회선)	430	1.000	1.700
매출액 (억원)	800	3.300	5.700

이를 위해 하나로통신은 '99년까지 총 1조1천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작년말 현재 망구축과 첨단 통신장비 개발, 확보 등에 약 4천7백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 투자액으로는 약 6천2백억원을 책정했다.

다. 시범서비스 제공

하나로통신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최첨단 통신 서비스의 품질 검증과 함께 고객의 문의에서부터 신청, 서비스 개통과 요금청구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총 점검하기 위해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서비스 제공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울산 등 4개 도시로 이 지역의 1백18개 주요 빌딩과 78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을 접수, 1만 가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기간은 3월말까지 약 두 달 동안이며,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에는 시내전화와 인터넷 접속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시범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상품은 광가입자망 중 FTTC(Fiber To The Curb)를 이용하는 가정용과 FTTO(Fiber To The Office)를 활용하는 기업용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가정용 상품은 '초고속 인터넷+전화', '고속 인터넷+ISDN', '음성 2회선' 등 세가지다. '초고속 인터넷+전화'는 384Kbps에서 최고 전송속도 8Mbps의 속도로 초고속 데이터통신 및 음성전화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고속 인터넷+ISDN'은 고품질 지능망서비스는 물론 최고 128Kbps의 속도로 인터넷 접속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기업용 상품은 기업의 특성에 맞도록 통신망 설계에서부터 광통신망 시스템 설치까지 최첨단 교환기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주문형 통신서비스가 제공된다.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제공되는 상품은 구내전화를 포함한 일반 음성전화와 ISDN PRI(30B+D) 등이다.

III. 사업 준비 현황 및 계획

가. 기간망 구축

하나로통신은 최첨단 광케이블을 구축, 고도화된 통신망 구축을 위해 작년 한 해에만 총 1천1백Km에 이르는 광케이블 선로시설 구축을 완료했으며, 올 해에도 총 1천1백Km에 이르는 광케이블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기간전송 설비는 98년에 2.5G급 전송장치 40여식 등 총 3백40식의 전송장치를 구축했으며, 올해 약 5백여식을 추가로 구축할 방침이다.

교환 설비는 현재 최첨단 교환기인 TDX-100급 이상의 기능을 가진 전화교환기 17식을 서울 4, 부산 2, 인천 2, 울산 1 등 4대 도시 9개 교환국에 설치 완료했다.

아울러 초고속 데이터통신이 가능하도록 ATM(비동기전송모드) 방식의 교환기 8식을 전국 4대 도시에 설치했으며, 올해 서비스 지역의 확대에 따라 전화교환기와 ATM 스위치 각 1식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처럼 하나로통신 첨단 통신망은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고품질의 광대역 첨단통신망으로서 ▶음성망과 데이터망의 분리로 안정된 데이터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데이터망에서부터 가입자 단말기까지 통합된 인터넷망(IP)으로 구성된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광대역 첨단통신망으로서 기업빌딩과 아파트단지 등 전 구간을 광케이블 이용하여 연결해 광케이블의 경우 8Mbps, CATV는 10Mbps, WLL은 128Kbps의 고속 데이터통신이 가능하며, 가입자망도 환형으로 Back-up망을 구성해 유사시 서비스 신뢰도를 높였다. 또 3만3천여 전화회선을 1~16개의 E1 전송회선으로 모아 한꺼번에 교환국으로 전송할 수 있는 V5.2 프로토콜을 채택해 교환시설과 선로 공사비의 대폭 절감과 장애처리 시 신속한 대응을 장점으로 한다.

두 번째 데이터통신용 네트워크를 ATM 및 IP망 등 음성통신망과 분리 수용했다. 이로써 현재와 같은 음성통신망을 데이터통신용으로 사용하는 경

우의 기준속도를 밀도는 데이터 전송속도를 개선하고, 사용자가 증가할 때 속도의 현저한 저하 및 인터넷 접속율이 저하되는 현상을 개선하는 등 안정된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망과 가입자 단말기까지를 통합된 인터넷망으로 구성함으로써 가입자가 원하는 전송속도를 보장하고, 인터넷 접속시 사용자의 IP(인터넷 주소)를 고정하지 않고 접속할 때마다 유동적으로 부여함으로써 IP 재사용률을 높이고 단말기 설치 및 변경이 쉽도록 했다.

나. 초고속 가입자망 구축

○ 광가입자망 (FTTO, FTTC)

- FTTO : 사업 초기에는 3백 회선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구축할 방침으로 올해 말까지 5백여개의 건물에 광가입자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 FTTC : 5백세대 이상의 대형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주요 아파트 단지의 광가입자망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무선가입자망 (WLL)

실제 서비스 환경하에서 상용 서비스에 준하는 다양한 시험을 통해 완벽한 기술적 검증 및 시장수용도 등의 검증 후 상용화 추진이라는 전략으로 바탕으로 9월경 서울지역에서의 상용화를 추진중이다.

지금까지 기능과 관련된 230개 항목과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의 필수항목 검증 등 상용시험과 현장시험을 마쳤으며, 시스템 안정을 위한 주요 모듈의 성능개선을 거쳐 4월부터 송파, 마포구 등 서울의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 CATV가입자망

하나로통신은 CATV가입자망을 방송·통신의 융합 시대에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주력망의 하나로서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상향잡음 개선, 셀 분할, 망관리 개선, 상향 주파수대역 확장 등 충분한 상용서비스 수준으로 망 보강을 한 다음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98년 10월부터 대전의 한밭 SO지역 3개 구를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5개 SO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올해 안으로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부산 지역의 총 10개 SO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 타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현재 한국통신과는 시내집중국 13개소의 15시스템과 접속망 구성을 완료했으며, 상호접속 구간에서의 망간 연동 및 접속시험을 진행중이다. 향후 부가서비스호 및 번호변경 안내 등도 별도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콤, 온세통신 등 시외/국제전화사업자 및 SK텔레콤 등 이동전화사업자와의 연동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나우누리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직접접속 회선 구성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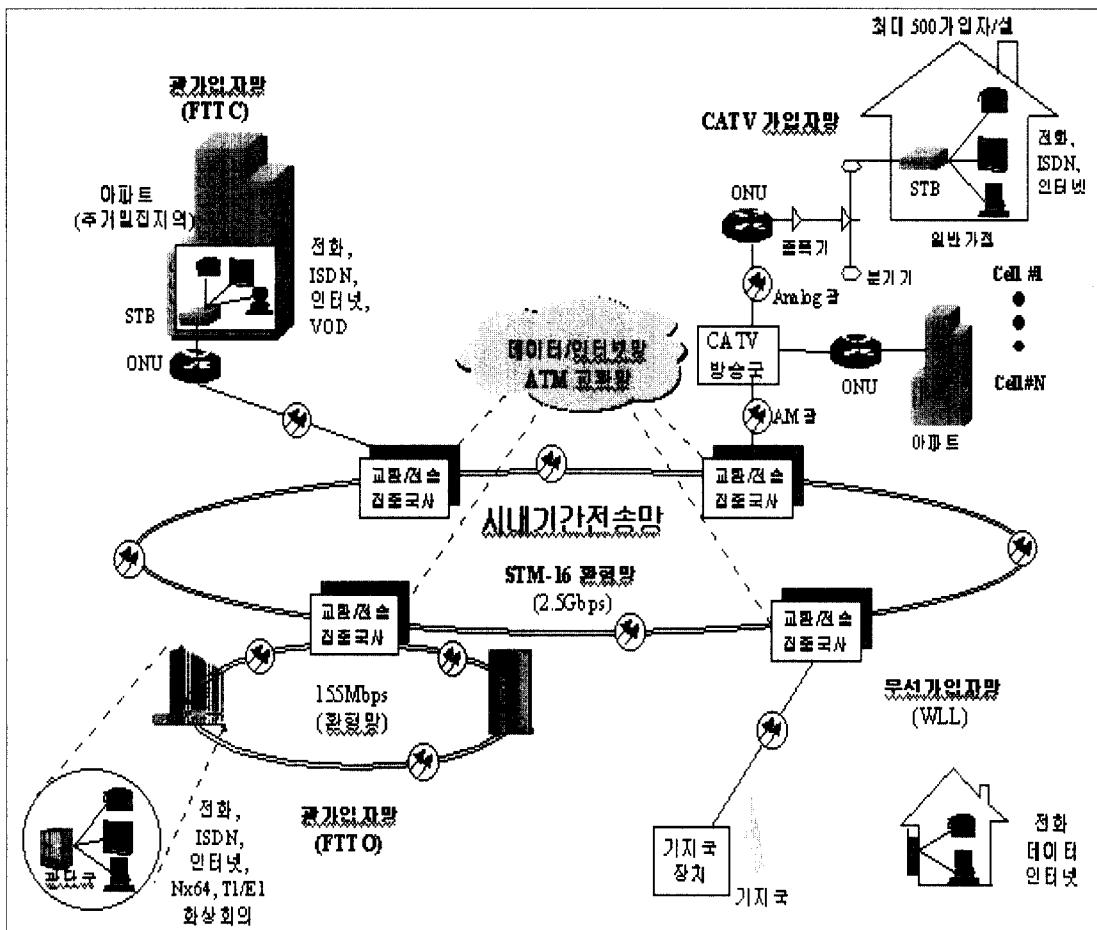
라. 아웃소싱 전략 활용

○ 주주사와의 사업 협력

하나로통신은 인력 및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아웃소싱을 주요 경영방침으로 삼고 있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의 영업, 통신망 운용, 개통 및 유지 보수 관련 업무를 주주사에게 일괄적으로 위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산의 동구, 중구, 서구, 강서구, 사하구, 영도구에서의 영업과 운용, 개통 및 유지보수

◆ 하나로통신 통신망 구성도



업무는 삼성이, 인천의 부평구, 계양구, 서구는 대우가 담당하고, 울산과 성남 전역에서는 각각 현대와 SK텔레콤이 담당한다.

98년 5월 이들 주주사와 재판매 및 업무위탁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서비스 및 위탁범위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현재 재판매 할인율에 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 영업센터 아웃소싱

하나로통신은 전화국 업무도 과감히 아웃소싱하는 방침을 확정하고 지역 밀착성이 우수한 전문업

체에 고객점점 업무를 일괄위탁할 방침이다. 이들 영업센터는 가입자 유치와 관리, 고객 창구 운영, 서비스 개통 및 장애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하나로통신은 유통망 구축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한편 체계적인 개통과장애처리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초기 영업센터는 서울 10개, 인천 1개, 부산 1개 등 총 12개 가량 운영된다.

이를 위해 하나로통신은 주주사로서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면허 보유업체의 컨소시움을 선정한다는 방침하에, 재무능력, 영업력 및 기술력을 종합적

으로 평가하는 한편 CATV 전송망을 이용한 사업 지역중 일부는 유자격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신 윤 식

- 1959년 9월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1964년 제1회 행정고시 합격
1964년 7월 ~ 1983년 1월 체신부 사무관,
서기관, 우정국장
1970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1986년 4월 홍조근정훈장
1988년 12월 ~ 1990년 12월 체신부 차관(20대)
1990년 2월 중앙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1991년 3월 ~ 1994년 3월 (주)데이콤 대표이사 사장(3대)
1991년 6월 홍조근정훈장
1994년 6월 ~ 현재 미 하버드대 정보통신정책연구소
종신연구원
1995년 ~ 1997년 순천대학교 객원교수
1996년 9월 ~ 1997년 12월 (주)정보환경연구원 이사장
1997년 2월 ~ 1997년 10월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
(초대)
1997년 9월 ~ 현재 하나로통신(주) 초대사장